

■ 2026 새해설계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참여·포용 환경 조성…전남 장애인체육 새 도약”

전문·생활체육 연계 확립…지역 저변 확대
체육 참여 기회 증대·선수 자립기반 조성도

“참여와 포용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전남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병 오년 신년사를 통해 참여와 포용이 보장되는 장애인체육 환경 조성, 공정·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한 신뢰 확보, 도내 전 지역 균형 발전·지역격차 해소 및 저변 확대, 국가·국제 수준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 분야별 사업을 역점 추진하며 도민과장애인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도장애인체육회는 학교·생활·전문체육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도내 22개 시·군 및 도서·산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며 저변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윤리 기준 강화와 예산 투명성 확보를 기반으로 조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교류를 확대해 전남 장애인체육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 9월 11~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는 전남선수단이 30개 종목에 400여명이 참가해 종합 7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제45회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7위)을 거둔 전남은 올해도 그 기세를 이어 ‘꾸준히 강한 전남체육’을 보여줄 전망이다.

장애인선수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도장애인체육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



사와 도내 주요 공공기관(한국전력,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협력해 장애인선수 취업연계 사업을 지속 운영 중이다. 201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

을 통해 현재까지 도내 19개 기업, 27개 종목, 287명의 선수가 취업에 성공했다.

이로써 운동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앞으로도 도장애인체육회는 기업 참여 확대와 종목별 직무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체육을 참여 기회 확대에도 집중한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약 2억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올해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170개소, 동호인 클럽 40개소를 운영해 장애인의 일상 속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완료됐으며, 구례군은 1월 중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미설립 2개 시군도 올해 안으로 체

육회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체육의 가치 향상을 위해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체육지원 시스템을 적용, 권역별 47명의 지도자들의 역량을 확대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요자들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과거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 차별로 인해 제한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체육의 긍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할 방침이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경기 성적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포용의 체육 환경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선수와 지도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가장 빨리 먼저’ 야구대표팀, 필승 각오로 WBC 준비

류지현호 ‘사상 첫 1월 캠프’ 진행
C조 경쟁국 중 유일하게 팀 훈련
투수 ‘빌드업’ 단계별 준비 목표

오는 3월 개막하는 제6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은 역대 가장 빨리, 가장 앞서 준비를 시작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9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1차 캠프지인 북미리아나제도 사이판으로 떠났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사이판에 1차 캠프, 일본 오키나와에 2차 캠프를 차린다.

역대 WBC 대표팀이 전체 소집 캠프를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즌 개막에 앞선 3월 초에 열리는 WBC는 투수들의 몸 상태가 성적과 직결한다.

류 감독은 “이번 캠프는 투수들 ‘빌드업’(실전에서 투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로 명확하게 목표를 밝혔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앞서 치른 5번의 WBC 모두 2월 중순에 캠프를 소집했다. ‘국민 감독’ 김인식 감독이 이끈 2006년 초대 대회는 2월 19일 일본 후쿠오카돔에 보여 열을 정도 둘러장 적은 훈련을 마친 뒤 곧바로 도쿄로 이동했다.

결승에 진출했던 2009년 WBC는 마찬가지로 김인식 감독이 팀을 이끈 가운데 2월 15일 미국 하와이에 전지훈련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13년과 2017년, 2023년까지 3개 대회는 모두 조별리그에서 고배를 먹셨다.

류중일 감독이 지휘한 2013년 WBC는 조별리그가 열린 대만 타이중 인근 더우루 구장에서 2월 12일부터 훈련했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조별리그 그가 벌어진 2017년 WBC 땐 김인식 감독이 다시 돌아와 2월 12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렸다.

일본 야구대표팀은 2월 14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사이판에서 WBC 1차 캠프를 소화 중인 야구 대표팀 선수들.

지난 2017년 대회를 앞두고 몇몇 국가대표 투수들이 1월 말 괌에서 훈련을 시작한 적은 있어도, 본격적인 대표팀 훈련 일정이 1월부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대표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케이 베이스볼 시리즈’를 마련해 채코, 일본과 두 차례씩 평가전을 치른 것까지 포함하면 류지현호의 준비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일본 도쿄돔에서 체코(3월 5일), 일본(7일), 대만(8일), 호주(9일)와 C조 조별리그를 치른다. C조에서 가장 먼저 대표팀을 소집한 것도 류지현호다.

일본 야구대표팀은 2월 14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한다. 또한 8강 티켓을 놓고 우리나라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은 오는 15일 대만 가오슝 훈련센터에서 합숙 훈련을 시작한다.

사이판에서 훈련을 시작한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은 21일 1차 캠프를 마친 뒤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하고, 2월 15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할 2차 캠프에 합류한다.

WBC에 출전하는 최종 명단 30명은 2월 3일 확정될 예정이라 오키나와 캠프는 WBC 승선을 확정한 정에 선수들끼리 치른다.

이후 WBC 사무국에서 마련한 공식 연습 일정에 따라 일본 오사카로 이동해 한신타이거스(3월 2일), 오릭스버펄로스(3일)와 2경기를 치르고 결전지 도쿄에 입성한다.

PGA 투어, 소니오픈으로 2026시즌 내일 개막

이승택 데뷔전…김시우·김주형·김성현도 출격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하와이에서 2026 시즌을 시작한다.

2026시즌 PGA 투어는 1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044야드)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총 상금 910만달러)으로 막을 올린다.

애초 PGA 투어는 9일부터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필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지난해 우승자들이 참가하는 더 센트리로 2026시즌을 출발할 계획이었지만, 마우이섬의 극심한 가뭄으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소니오픈이 개막전이 됐다.

가을 시리즈를 포함해 11월까지 이어질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대회엔 총 120명이 출전해 올해 첫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소니오픈은 2008년 최경주, 2023년엔 김시우가 우승을 차지해 한국 선수들과도 좋은 인연이 있는 대회다.

2024년엔 안병훈이 준우승한 바 있다.

올해는 4명의 한국 선수가 출격해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시즌 신인인 이승택이 데뷔전에 나서 시선을 끈다.

1995년 7월생으로 만 30세

인 이승택은 2024시즌까

지 한국프로골프

(KPGA) 투어에서 활

동하다가 미국 무대에

도전한 선수다.

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자격으로

PGA 투어 월리파인스클에

나서서 PGA 2부 콘페리투

어 출전권을 확보한 그는 지

난해 콘페리투에서 꾸준한 경기력으로 시즌 포인트 13위에 올라 상위 20명에게 주어지는 PGA 투어 카드를 따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LIV 골프 이적설에 힘싸이기도 했던 2023년 우승자 김시우와 PGA 투어 통산 3승의 김주형, 콘페리투에 상위권자 자격으로 2년 만에 PGA 투어에 복귀한 김성현도 함께 출전한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미국), 2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등은 나서지 않는 가운데 이번 대회 출전자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5위의 러셀 헨리(미국)다.

지난해 US오픈 우승자 J.J. 스핀(미국), 지난 시즌 PGA 투어 3승을 거둔 벤 그리핀(이상 미국)도 참가한다.

2022년 이 대회 챔피언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콜린 모리카와,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도 우승을 다투만한 선수들이다.

PGA 투어 통산 34승을 거둔 62세 비제이 싱(피지)도 통산 상금 순위를 통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대회에서 연장전 끝에 니코 에차바리아(콜롬비아)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라 PGA 투어 5승을 달성했던 니 테일러(캐나다)는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PGA 투어 공식 토너먼트에서 흡은 파워랭킹에서

는 헨리와 스핀, 마쓰야마가 1~3위에 올랐고, 김시우가 7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조선의 4번’ 이대호 강연

오늘 대전컨벤션센터서…130여명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

KBO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컨벤션센터(유성구 엑스포로 107)에서 2026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번 신인 오리엔테이션은 2026시즌 KBO 리그에 첫발을 내딛는 KIA타이거즈 김현수 등 신인선수와 육성선수 등 총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KBO 운영팀의 리그 소개를 시작으로 프로선수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책임 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리엔테이션의 첫 강의는 ‘조선의 4번 타자’로 불리는 전 롯데자이언츠 이대호가 맡는다.

2010시즌 타격 7관왕을 비롯해 최다 연속 경기



김두한 교수는 선수 컨디션 관리와 스포츠 손상 예방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즌동안 안정적 인경기력을 유지하고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부정 행위 및 음주 운전 방지 교육은 대전지방 경찰청 소속 정영욱 경위가 담당한다. 정영욱 경위는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선수로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책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행사에 제공되는 생수 등 음료는 KBO 리그 공식 스폰서인 동아오츠카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었다.

16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4개 국씨 4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두 팀이 8강 토너먼트에 올라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A조에서는 이날 키르기스스탄을 1-0으로 물리친 요르단(승점 6·2승 1패)이 조 2위로 8강에 합류했다. 개최국이자 2022년 우즈베키스탄 대회 우승팀인 사우디는 승점 3(1승 2패)을 쌓은 데 그쳐 조 3위로 대회를 일찌감치 마감했다.

베트남이 A조 1위에 오르면서 2024 카타르 대회에서 정상에 등극한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8강에 피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은 14일 맞붙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시리아, 둘 중 한 팀과 4강 진출을 더했다.

요르단이 B조 1위를 이미 확정 지은